

# 백 투 블랙(Back to Black)앨범에 관한 고찰

권오진\*, 조태선\*\*

\*청운대학교 대학원,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e-mail: narla\_ojin44@naver.com  
entheos@chungwoon.ac.kr

## A Study on “Back to Black” Album

Oh - jin Kwon\*, Tae-seon Cho\*\*

\*Chungwo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t of Applied Music, Chungwoon University

###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생전 단 두장의 앨범뿐이었지만, 그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천재 싱어송라이터 에이미 와인하우스를 다루고 있다. 60년대 소울을 다양한 장르로 퓨전하고 그녀의 독특한 음악관과 색깔이 더해진 대표적인 앨범인 [Back To Black]에 관한 고찰을 한다. 많은 소울 보컬리스트들의 롤모델이 되었던 그녀의 음악은 인간의 잠들어있는 본성, 솔직함, 심지어 저 깊은 곳에 잠들어있던 어두운 면들까지 끌어내어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치열했던 삶이 녹아있는 것 처럼 느껴진다. 두장의 앨범 중 특히 마크 론슨과 같이 작업한 앨범[Back To Black]이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알려지게 되면서, 큰 성공과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뒷면에서는 음주, 약물중독과 같은 많은 고초들을 겪으면서 짧았지만 다사다난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Back To Black]은 시간이 지나 뒤 세대들에게도 회자될 것이라 생각한다.

## 1. 서 론

살면서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타투로 온 몸을 뒤덮고 들어올린 흑발 머리의 여성 사진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단 2장의 앨범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천재 아티스트였으나 2011년 27살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생전 뛰어난 음악 못지않게 파격적인 행동과 기행, 마약과 음주 문제 등으로 유명했으며 사망원인 역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밝혀졌다. ‘천재는 27살에 죽는다’는 이야기에 너무나 잘 들어맞는 인물. 사후 신이 질투한 천재 뮤지션으로도 불린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전 세계적 성공은 이후 비슷한 컨셉의 영국 출신 소울 아티스트인 아델과 더피 등이 세계적인 기반을 닦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사장되었던 50~60년대 모타운 사운드(흑인 소울의 낭만주의 재즈 사운드)가 에이미를 통해 부활하면서, 팝 음악의 판도도 변하게 되었다. 1집 “Frank”는 다양한 장르가 하이브리드된 재즈 앨범이었고, 2집에서 본격적으로 60~70년대, 혹은 그 이전의 고전 소울을 기반으로 블루스, 리듬 앤 블루스, 재즈, 펑크(Funk) 그리고 힙합 등을 섞은 음악을 추구하였다. 60년대의 소울을 현대에 복원하되,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를 퓨전하고 에이미 와인하우스만의 독특한 음악관을 더한 것이다. 직설적인 가사 역시 그녀 음악의 예술 중 하나이고, 특히 특유의 자기비하적이고 자조적인 가사를 두고 평론가들은 ‘소울 음악과 힙합 가사의 결합’이라고 평하기도 하였다.

## 2. 본 론

에이미는 흔치 않은 콘트라alto(Contralto)음역의 걸쭉한 목소리와 리듬감 등 누구라도 들으면 한 번에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는 허스키한 목소리의 소유자였다. 그녀는 재즈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재즈 보컬 특유의 트레몰로와 같은 기교가 소울 보컬 형식에 묘하게 섞여 있다. 라이브에서는 술과 마약에 취해 풀린 눈으로 비틀거리면서도 칼 음정을 놓치지 않았던 천재이다. 힙합, 재즈, 블루스, 록 펑크를 자신만의 현대적인 소울 보컬로 재해석해 다시 대중으로 끌어들이 팝이 된 (팝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천재적인 음악성과 후대의 에이미와 비슷한 컨셉의 소울 보컬리스트들에게 지평선을 제시하였다.

1집이 평단의 호평을 받았지만, 그의 유명세는 영국 내에 머물고 있었다. 이때 에이미는 런던과 뉴욕을 오가며 음악작업과 공연을 하었는데, 에이미의 음악적 관심사가 재즈에서 60년대 소울로 옮겨가던 시기였다. 그리하여, 에이미는 뉴욕을 기반으로 90년대부터 활발히 활동한 힙크-소울 밴드 댐-킹즈(The Dap-Kings)를 백킹 밴드로 고용하였다. 이들 덕에 뉴욕 음악계에 에이미의 노래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 뉴욕의 유명 인터넷 방송국 이스트 빌리지 라디오(East Village Radio)의 한 DJ가 특히 에이미의 노래를 자주 플레이하였다. 그 계기로 그는 에이미와 친분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이 DJ가 바로 [Back To Black]의 프로듀서 마크 론슨(Mark Ronson)이다. 당시 마크 론슨은 무명의 DJ였지만, 뮤지션이자 사교계 유명인사인 부모님 덕에 어렸을 적부터 팝 문화에 빠져 상당한 음악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에이미가 기본 멜로디를 만들어오면 마크 론슨, 혹은 살람 레미가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이 셋 모두 60년대 소울 음악에 무한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1집 이후, 에이미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남자, 블레이크 필더-시빌(Blake Fielder-Civil)을 만나게 된다. 에이미와 블레이크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였는데, 이 불안정한 생활은 에이미가 술과 마약에 빠지는 원인이 되었다. 마크 론슨과 에이미가 뉴욕을 거닐며 이 이야기를 하던 중, 에이미가 “No, no, no.”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론슨이 바로 멜로디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들은 바로 스튜디오로 직행하여 음악 작업을 하였고, 그 결과물이 바로 “Rehab”이다.

에이미의 독특한 경험과 재기 발랄함이 합쳐진 가사와 쉬운 멜로디, 세련된 편곡의 “Rehab”은 에이미의 두 번째 앨범이자 생전 마지막 정규 앨범 [Back To Black]의 첫 싱글이었는데, 발매되자마자 젊은 층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으며 에이미의 시그니처 송이 되었다. “Rehab”의 성공 덕에 [Back To Black]의 두 번째 싱글 “You Know I’m No Good”은 미국에서도 발매되었다. 이후, “Back To Black”, “Tears Dry On Their Own”, “Love Is A Losing Game” 등 후속 싱글이 연달아 발매되는데, 역시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영미권은 ‘셀러브리티’라는 단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인터넷이 발달하여 쇼비즈니스와 관련 없는 사람이 유명세를 타고, ‘빅 브라더(Big Brother)’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얼리티 쇼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아무 재능 없는 이들이 가십면을 차지하며 셀러브리티가 되었다. 이들은 가십지의 원색적인 비난에도 개의치 않고, 유명세를 위해 오히려 파파라치를 이용하였다. 음지에 있던 파파라치가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유명인의 사생활은 사라져버렸는데, 이 시기 파파라치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에이미였다. 애초에 셀러브리티로서 유명세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파라치에 대응하는 방법조차 몰랐던 에이미는 그들이 자극적인 사진을 얻기 위해 일부러 던지는 욕설에 일일이 반응을 하였다. 그럴수록 가십지는 더욱 노골적인 사진과 모욕적인 카피를 붙였고,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에이미는 더욱 약물에 빠져들게 된다.

이 무렵, 에이미 와인하우스는 브릿 어워드와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하지만 이미 약물로 심신이 망가져버린 에이미는 가수의 역할을 어느 정도 상실한 상태였다. 그래미 어워드가 열리기 3일 전에 치러진 브릿 어워드에서 에이미는 초점 없는 눈빛, 불안한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며 대중의 비난을 샀다. 그런데다가, 약물 중독 전과로 미국 입국 비자를 거절당해 그래미 시상식 참여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결국, 에이미는 위성 화면을 통해 그래미에 참석할 수 있었고,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무려 5개 부문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 또한, 이보 노벨로 어워드(Ivor Novello Awards)에서 두 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하는 최초의 아티스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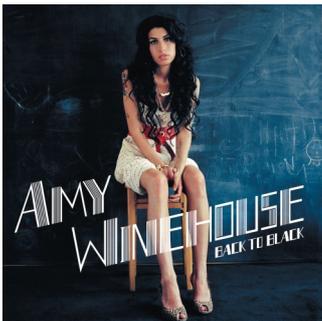
백 투 블랙 의 앨범 수록곡은 다음과 같다.

**Back to Black CD1**

1. Rehab
2. You Know I'm No Good
3. Me & Mr. Jones
4. Just Friends
5. Back to Black
6. Love Is A Losing Game
7. Tears Dry On Their Own
8. Wake Up Alone
9. Some Unholy War
10. He Can Only Hold Her
11. Addicted

**Back To Black CD2**

1. Valerie
2. Cupid(Deluxe Edition ver.)
3. Monkey Man
4. Some Unholy War(Down Tempo)
5. Hey Little Rich Girl(feat. Zalon & Ade)
6. You're Wondering
7. To Know Him Is To Love Him(Napster Live)
8. Love Is A Losing Game



[그림 1] 백 투 블랙의 앨범 자켓

**3. 결 론**

에이미를 세계적 스타의 반열로 올린 두 번째 앨범 [Back To Black]은 첫 앨범보다 더욱 깊이 있는 음악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음악과 외양의 변화는 10대를 갓 벗어난 소녀 재즈 보컬리스트를 자신만의 세계가 분명하고 문신 가득한 소울 디바로 거듭나게 해주었다. 특히, 레트로 소울에 담은 진솔한 가사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에이미는 성에 대

해 또래 여성 아티스트 중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노래하였다.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우선시 하고 성에 능동적이고 당당한 모습은 에이미가 아니고서야 나올 수가 없었다.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담으려 했던 기존 팝 가사와는 달리, 본인의 순탄치 않은 경험에서 우리나라와 지독할 만큼 현실을 반영한 가사는 한 편으론 직설적으로, 한 편으론 문학적으로 표현되었다. 겨울밤과 같이 어두운 에이미의 가사와 마크 론슨의 세련되고 감각적인 편곡으로, 마치 한 편의 잔혹 동화 같았던 에이미의 노래에 영국의 젊은이들은 열광하였다.

세월에 빛이 바래 창고 속이나 과묵히있던 50~60년대 모타운 사운드가 에이미를 통해 부활하면서, 팝 음악의 판도도 변하게 되었고,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지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운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한 시대 상황으로 당장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긍정을 강요당했던 불안한 우리의 청춘을 대변하며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20대의 나이에 단 두 장의 앨범으로 음악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그녀가 남긴 음악적 흔적들은 우리 세대들에겐 충격과 새로움을 주었고, 그녀의 음악을 닮기 위해, 또는 그녀와 같은 뮤지션이 되기를 추구하는 뒤 세대들에게 많은 발전과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은 분명하다.

**참고문헌**

[1] <https://namu.wiki/w/에이미/%20와인하우스>  
 [2] [wikipedia.org](https://www.wikipedia.org)  
 [3] [M.Rythmer.net](https://www.M.Rythmer.net)  
 [4] [www.amazon.com](https://www.amazon.com)  
 [5] [www.youtube.com/watch](https://www.youtube.com/watch)